



여행자 센터
2018년 9월 오픈한 추자도 여행객을 위한 쉼터. 상추자 대서리의 추자면사무소 바로 옆, 상추자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여행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꾸며진 곳으로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다. 추자도 도보 관광지도, 스토리투어 가이드북과 키오스크가 있어 추자도 관광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배편정보

운항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은 필수!

선명	출발	도착	요금(원)	휴항일	이용안내
퀸스타 2호 (쾌속선)	제주 09:30	상추자 10:30	13,400	매월 2,4째주 수요일	(주)씨월드고속훼리 1577-3567
	상추자 11:00	우수영 12:30	31,500		
	우수영 14:30	상추자 16:00	33,000		
레드펄호	상추자 16:30	제주 17:30	11,900		
	제주 13:45	하추자 15:15	10,150		
	하추자 15:45	완도 17:45	주중 21,550 주말 23,750	매월 1,3째주 수요일	(주)한일고속 1688-2100
	완도 08:00	하추자 10:00	주중 23,050 주말 25,250		
	하추자 10:30	제주 12:00	8,650		

* 제주도에서 출발시
오전 배(퀸스타 2호) : 제주항 제2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오후 배(한일고속훼리) : 제주항 제6부두 국제여객터미널

마을버스정보		토/일/공휴일 07:00, 18:00 운행안함	
코스	운행시간	요금(원)	이용안내
대서리 ▶ 영흥리 ▶ 북리 ▶ 신양2리 ▶ 예초리	07:20 ~ 20:30 (1시간 간격)	성인 1,000 청소년 600 어린이 400	추자교통 064) 742-3595
* 교통카드 사용가능 (무료 환승 2회 기능)			

추자도 주요기관 연락처

추자면사무소	064) 742-5400	파출소	064) 742-8112
추자보건지소	064) 728-4225	해경파출소	064) 766-2231
추자 119센터	064) 742-3119	제주관광공사 종합관광안내센터	064) 740-6000~2
추자항 매표소(상추자)	064) 742-3513	신양항 매표소(하추자)	064) 742-8364

추자는 이런 食

추자 참모자반

봄바람에 살랑이는 추자의 향, 참모자반

추자의 봄은 바닷바람에 살랑거리는 참모자반과 함께온다. 봄 무렵의 추자 해녀는 바다에서 건져 올린 참모자반을 줄에 거느라 한창이다. 해풍에 잘 말린 참모자반은 대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먹기 좋게 썬 고기를 넣고 한소금 끓여 '봄국'으로 즐긴다. 봄국은 오래도록 제주 사람들의 허기진 속을 채워준 소울푸드다. 멜젓 등 각종 양념과 무치면 나른한 봄에 무더진 입맛을 깨우는 훌륭한 반찬이다. 민박밥상에 오른 탱글탱글한 제철 참모자반을 맛보는 행운이 내일 찾아올는지도.

추자 홍합/거북손

짭조름한 리얼 추자 바다의 맛

추자 바다에서 자란 해산물은 음식이 될 때 더욱 진가를 알 수 있다. 추자 사람들은 추자만 해산물이면 요리에 다른 조미료는 필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더 크고, 더 끌깃하고, 더 담백하다는 사실. 여름이 제철인 홍합과 거북손은 추자 사람들의 손맛이 더해져 한층 탱글탱글하고 먹음직한 자태를 갖춘다. 무심한 듯 툭 올려놓지만, 한순간에 진수성찬이 차려지는 추자 밥상에서 홍합은 전골에, 거북손은 해물전에서 요리 비결을 담당한다.

돌문어/뿔소라

가을처럼 풍성한 추자 바다의 맛

황금어장 추자도에는 생산만 있는 게 아니다. 추자 바다를 유연하게 누비고 다니는 돌문어와 바위인 듯 조용히 몸을 숨기고 있는 뿔소라는 밥상을 한층 다채롭게 채우는 기특한 가을 먹거리다. 어느 식재료가 그럴듯 것 같은 돌문어와 뿔소라는 특별한 요리법 없이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별미 중의 별미다.

겨울삼치

제주에는 없는 추자 삼치회

10월부터 삶이 오르기 시작하는 삼치는 겨우내 가장 맛있는 추자도의 대표 먹거리다. 기름기가 많아 차이고 부드러운 삼치는 회로 먹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생선이라고, 먹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구운 김 위에 밥을 올리고 삼치회를 비법 양념장에 푹 찍어 얹는다. 쌈의 마무리는 파김치를 올리는 것이다. 구수한 삼치회를 먹고 난 후에는 회를 뜨고 남은 생선으로 칼칼하게 끓인 맑은탕으로 추자 삼치밥상의 코스가 마무리한다.

추자 톳

추자 앞바당의 블나물

풍요로운 해산물의 보고, 추자에서 미역에 버금가는 대표 해산물을 꼽자면 단연 톳이다. 한때는 마을 단위로 공동 채취, 매매했다. 갯바위에서 채취한 자연산 톳은 살아서 두부를 으깨 넣고 된장에 무쳐 먹거나, 쌀에 넣어 밥을 짓기도 한다. 봄철의 불청객인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에 효과적인 톳, 올봄에는 추자 앞바당에서 캔 블나물인 톳을 제안한다.

조기매운탕/조기젓갈

가을 조기, 추자는 이런 食

추자의 어선들은 가을철 참굴비를 가득 싣고 바삐 뱃길을 오간다. 참굴비가 가장 신선할 때 먹을 수 있다는 행운은 어디까지나 추자도라서 가능한 일이다. 참굴비로 만든 대표 메뉴는 조기매운탕과 조기젓갈. 참굴비와 양파, 무, 미나리를 넣어 칼칼하게 끓인 조기매운탕은 냄비 바닥이 보일 때까지 숟가락질을 멈출 수 없게 한다. 소금을 뿌려 1년 이상 숙성시킨 참굴비를 벌겋게 무친 조기젓갈은 밥과 먹으면 좀체 젓가락이 멈춰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멸치액젓/젓갈/구이

추자 멸치 활용백서

참조기의 뒤를 잇는 추자도의 자랑거리, 멸치. 멸치는 활용도가 높아 액젓으로, 젓갈로, 구이로 가지각색으로 변신하는 것이 주특기다. 추자 멸치를 발효, 숙성시킨 후 이를 달이고 어과하면 액젓이 되는데, 요리할 때 간장 대신으로 쓰곤 한다. 국에 한 숟가락 멸치 조미료 없이 순식간에 풍미가 살아난다. 다진 멸치에 고추장 양념을 넣어 절인 멸치젓갈 또한 인기 아이템이다. 별다른 양념 없이 소금만 뿌려 석쇠구이로 먹어도 고소함이 배가 된다.

학꽁치

겨울을 버티게 하는 그 맛, 민박집의 학꽁치 회덮밥

바다낚시의 성지 추자는 겨울철이면 학꽁치가 떼를 지어 몰려온다. 영양이 풍부한 학꽁치는 주로 회로 먹거나 무를 넣고 조림으로 먹는다. 추자 사람들은 학꽁치의 내장을 제거하고 헛볕에 말려 미리 손질한 것을 냉동실에 얼려두고 구워 먹기도 한다. 꽁치구이는 추자 사람들이 초봄 무렵까지 즐겨 먹는 일상식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추자의 민박집에서 간간이 식사로 내주곤 하는 학꽁치 회덮밥은 추자 사람들도 인정하는 겨울별미이다.

추자도 먹거리, 맛집

대서리

이맛	추자로 24-5	064) 742-5148
황금섬숯불갈비	추자로 36	064) 742-0478
청정고을	대서1길 6	064) 742-4800
강진숯불갈비	추자로 50,1층	064) 743-4266
동해루	추자로 58	064) 742-3615
한밭식당	대서3길 21	064) 742-1858
올레실내포장마차	추자로 52	064) 742-2070
중앙식당	추자로 8-1	064) 742-3735
우리동네숯불갈비	추자로 10-2,1층	064) 742-3562

대서리

귀빈식당	추자로 14-3	064) 742-4900
BBQ치킨추자점	추자로 14-4	064) 742-6337
오동여	추자로 18	064) 742-9086
제일식당	추자로 16-2	064) 742-9333
신등대민박수산화센터	추자로 12	064) 742-3868
커피앤팅	추자로 58-1	064) 743-8589
해적선	추자로 42-1	010-8623-8229
순동이꼬치구이점	추자로 58	064) 742-6663

영리

추자바다숯불갈비	추자로 94-1	064) 727-9219
오누이밥상	추자로 68	064) 742-1617
밀물식당	추자로 106-1	064) 742-2359
추자유심이감성찜닭	추자로 78	010-5787-7277
보라네	추자로 106	064) 744-4305
추자빼해장국	추자로 64	064) 742-7905
추자봉이네	신양2길 39	064) 749-9055
카페힐스	신양4길 18	010-5489-5500

신양리

<div data-bbox



“1박2일” 추자도 완전정복

1일차_걸으며 즐기는 상추자도 구석구석



A1 최영장군사당 P.13 참고



A2 봉골레산
대서리 최복단에 위치한 85.5m의 낮은 산. 정상에서 추자군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어 관광객도 즐겨 찾는 곳이다. 방사탑과 쉼터가 있으며, 주자 주민들이 사랑하는 일몰명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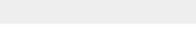
A3 다무래미
봉골레산에서 내려오면 썰물 때는 바닷길을 통해 건너갈 수 있는 추자의 ‘모세의 기적’ 다무래미가 있다. 소나무와 갓바위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A4 후포해안
추자도의 농들해안 중 유일하게 상추자도에 있는 농들해안. 어름철 물놀이를 하기 좋은 곳으로 바닷가에서 그물을 쳐 물고기를 잡는 후릿그물체험도 할 수 있다.



A5 용돌병 P.12 참고
A6 나바론하늘길 P.6 참고



A7 등대전망대 P.10 참고
A8 영흥리벽화골목 P.9 참고



2일차_마을버스 타고 하추자도 탐험하기



B1 대왕산
하추자도 신양2리 석두리 바로 뒤쪽에 표고 125m로 높이 솟은 산. 전망대에 이르면 하추자 근처의 무인도부터 저 멀리 둑리 고갯길, 상추자도 나바론절벽의 옆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



B2 장작평사 P.8 참고
B3 신양리 마을길
빛바랜 간판과 아담한 상점 몇 곳, 벌이 가득 내려앉은 골목길. 신양항구 뒤로 드리운 신양리는 흡사 활영장을 연상케 한다. 마을 중심에 큰 정자가 있어 쉬어가기 좋다.



B4 예초기정길 P.10 참고
B5 111번 천주교 성지순례길
벼랑 끝에 서 있는 눈물의 십자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건너 모습을 드러내는 황경한의 묘, 그리고 추자성당으로 이어지는 고요하고 엄숙한 섬의 길을 걷는 동안 마음이 쉬어간다.



B6 모진이해수욕장 P.9 참고



“나만 몰랐던 제주, 추자도 탐험하기”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가 모여 만든 제주 섬 속의 섬 추자도, 낚시꾼들의 성지이자 올레꾼들의 필수 코스인 이 섬은 사실 낚시와 올레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채로운 면면을 가지고 있다. 제주와는 또 다른 제주, 추자도를 탐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추자도 여행자 센터



올레길 (18-1)



나바론 하늘길



버스노선



체험어장



무인도 낚시 포인트



올레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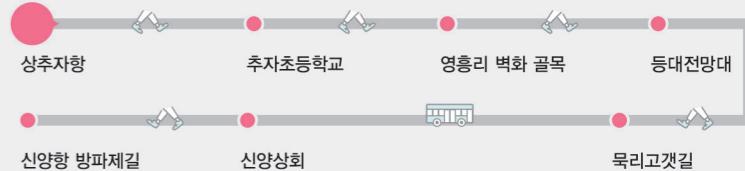
총거리 18.2km | 소요시간 약 6~8시간 | 경유지 36 | 난이도 상

* 2018년 제주올레 홈페이지 기준.



인생샷 보장, 포토존 투어

인생샷 코스



C1 상추자항

추자도로 향하는 오전 배가 도착하는 곳. 배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보이는 포토존은 추자도의 바다와 하늘을 닮은 파란색과 파도와 구름을 닮은 하얀색의 배색이 돋보인다. 상추자항은 올레길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C2 추자초등학교

상추자도 대서리에 위치한 초등학교. 추자초등학교의 알록달록한 건물은 상추자항에서부터 선명히 보여 찾기도 쉽다. 학교 뒤 최영장군사당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돌아보면 추자초등학교와 상추자도 마을의 모습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C3 영흥리 벽화 골목

상추자도 영흥리 마을 일대에 조성된 벽화골목. 색색의 타일로 그린 벽화와 오래된 상점들이 어우러져 있는 게 특징이다. 타일에 헛빛이 자연스럽게 반사되어 사진을 찍기에는 최적의 장소이다.



C4 등대전망대

주황빛의 지붕이 특징인 영흥리 마을부터 상추자항까지 상추자도의 전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등대전망대. 하추자도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연도교 너머 하추자도와 추자군도의 모습도 볼 수 있다.



C5 묵리고갯길

청명한 날이면 한라산까지도 보이는 하추자도 묵리의 뷰포인트. 빨간 프레임의 포토존은 한라산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액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한라산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제주의 다도해 인 추자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C6 신양상회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하추자도의 핫 플레이스. 하얀 배경에 하늘색으로 쌓은 간판의 신양상회는 옛 상점 특유의 소담한 감성을 간직하고 있어 의도치 않게 포토존이 된 곳이다. 100년 가까이 되었다는 신양상회는 겹라면 막집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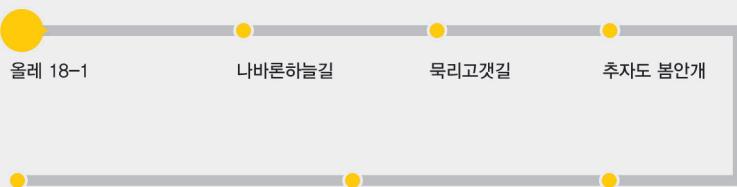
C7 신양항 방파제길

추자도행 오후 배가 들어오는 신양항 옆 방파제 위로 쭉 뻗은 길. 나선형 계단이 곳곳이 자리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푸른 바다 위로 보이는 빨간 등대는 포토존으로도 손색이 없는 남다른 존재감을 자랑한다.



봄 추자 탐험

#탁트임 #맛집 #올레길 #야경 #꽃길 #트레킹



春1 올레 18-1



제주에서 가장 높은 올레길, 추자 올레
제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펼쳐지는 올레길, 추자 올레는 상추자와 하추자를 넘나들며 섬 구석구석을 경험하는 가장 세심한 추자 여행법이다. 올레길을 온전히 걸으려면 6~8시간이 소요되니 추자올레를 준비하고 있다면 섬에 하룻밤 묵어가는 일정을 염두에 두자. 대서리 마을을 시작으로 최영 장군사당, 봉골레산, 나바론하늘길, 추자교를 이어 묵리고개, 신양항과 모진이 해수욕장, 예초리기정길 등 이름난 명소와 아직 소문나지 않은 비경까지 속속들이 보며 쉬멍 걸으며 즐겨보자.

春2 나바론하늘길



하늘 아래 가장 짜릿한 트레킹 구간
나바론하늘길은 영화 <나바론 요새>에 나오는 절벽과 닮아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치솟을 듯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오르막길을 걷다 보면 괜히 하늘길이 아니라는 걸 실감한다. 동양학에 나을 법한 깔아지른 절벽의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 길을 낸 나바론하늘길은 걷는 맛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보는 풍경 또한 로컬들이 꼽는 추자 비경이다. 이웃한 용동봉 전망대는 나바론 절벽을 오롯이 감상하는 포인트.

春3 묵리고갯길



섬마을의 고갯길이 품은 신비

산에 둘러싸인 고요한 마을 묵리는 느지막이 해가 떠오르는 듯한 신비로움을 머금은 곳이다. 묵리의 아득하고 아름다운 길을 거닐다가 묵리고개에 다다르면 눈 아래로 펼쳐진 하추자와 추자군도, 질푸른 바다가 조화를 이루며 그윽한 운치를 선사한다. 봄날, 자욱한 물안개 속에서 실루엣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추자와 추자군도는 가히 신선하다. 맑은 날에는 한라산이 위엄 있게 형태를 드러내는데, 추자가 제주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확인해주는 듯하다.

春4 추자도 봄안개



마성의 물안개, 봄날의 추자

뿌려놓은 듯 자리한 42개의 섬 군도를 이루는 추자도에 봄이 오면 특별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따사로운 봄날, 수십 개의 섬은 머리마다 포근한 봄기운이 내려앉고, 바다로 고개를 돌리면 모자마냥 물안개를 엊고 있는 섬 풍경이 호기심에 호기심을 부른다. 몽돌해수욕장과 해안 절벽 등 추자의 구석구석마다 스멀스멀 자욱하게 피어나는 봄날의 안개는 익숙한 풍경을 한순간 낯선 풍경으로 바꿔놓는다.



春5 추자 유채꽃길



봄 추자, 꽃길만 걸게 해줄게

봄의 전령사 유패꽃이 추자도에 내려왔다. 탐스러운 노란 물결은 추자교에서 예초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약 5km의 유패꽃길이 클라이맥스다. 일렁이는 꽃길 너머로 파란 바다가 어우러지는 데, 밤길을 흔히 밝히는 꽃물결은 보름달이 뜬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펼쳐 보인다.

春6 추자 민박밥상



솔직히 집밥보다 맛있는 민박밥상

1914년 제주에 편입되기 전까지 전라남도에 속해 있던 추자는 제주도 못지 않게 전라도의 생활양식이 녹아 있다. 추자만의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 팁 한 가지, 바로 민박집 상차림이다. 추자의 민박집이 차리는 한상에는 섬과 바다가 기른 싱싱한 먹거리와 푸근한 인심이 가득하다. 안 먹은 이는 있어도 한 입 먹고 안 먹은 이는 없다는 민박밥상은 철에 따라 바꿔내는 로컬푸드 한상차림에 눈과 입 모두 그저 즐겁다.

春7 등대산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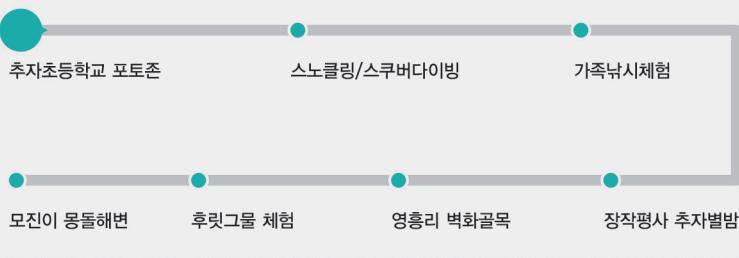
반짝이는 밤바다가 불러낸 봄

추자도에서 보내는 하루, 밤바다가 봄을 불러냈다. 인상파 화가의 작품처럼 마을을 총총 밝힌 불빛은 바닷물결 위를 종종걸음으로 노닌다. 미감 가득한 추자의 밤을 즐기는 데에는 등대산이 제격이다. 등대산의 등대정에 앉아 상추자 바다를 비추는 야경을 눈과 마음 가득 담을 것.



여름 추자 탐험

#시원함 #피서 #인생사진 #별밤 #벽화 #낚시



여름 추자초등학교 포토존



여행에서 견진 인생사진

SNS에서 하트 세례를 받은 '인생사진'은 모름지기 여행지에서 견져야 하는 법. 발꿈치를 들거나 휴대전화를 거꾸로 두는 등 만족스러운 한 장을 위한 무리수가 따로 필요 없는 포토존이 추자에 있다. 팬톤컬러를 조합해 색을 입힌 추자초등학교에서는 나의 피부톤과 착장에 맞춰 배경을 고를 수 있다. 무심한 듯 서 있기만 해도 기본 이상은 보장된다.

여름 스노클링/스쿠버다이빙



추자 바다를 즐기는 몇 가지 피서법

추자 바다를 다른 차원으로 즐기고 싶다면, 물 밖이 아닌 물속으로 가보자. 제주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낯선 풍경이 추자 바다 아래에 있다. 낚시천국으로 통하는 곳답게 추자 바닷속은 살아있는 물고기 도감이다. 이미 이를 경험하고 온 한 다이버의 표현을 빌리자면 초대형 아쿠아리움에 간 듯한 기분이라고.

[스노클링/스쿠버다이빙 장비 렌탈 술](#)

내사랑추자야[010-5464-5531]

골드피쉬 스쿠버다이빙[010-5299-3226]

여름 가족낚시체험



우리 가족이 추자 바다를 즐기는 법, 바다낚시 낚시꾼들의 파라다이스, 추자도. 여름의 추자는 대형 돌돔과 참돔을 낚는 짜릿한 손맛으로 더욱 큰 사랑을 받는다. 추자에서는 보트/선상/무인도/갯바위 낚시 등 선택지가 다양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추자의 베테랑 선장이 추천하는 주요 포인트는 수령섬, 악생이, 다무래미 등이다.

[추자도 낚시체험](#)

신동대낚시[010-3697-5716]:

선상낚시, 갯바탕(바롯잡이) 체험, 출조 등

반도낚시[010-3691-3833]: 선상낚시 등

추자피싱스토리[064-742-8030]: 보트낚시 등

여름 추자별밤



낭만 가득 추자별밤

추자도의 밤하늘은 조금 더 검고, 더 깊고, 더 높다. 시야를 가리는 건물이나 분주한 경적소리가 없는 이곳에는 오직 별을 세는 낭만으로 충만하다. 몽돌 위에 담요를 펴고 누워서 여름 별자리인 백조자리와 천칭자리를 찾아보자. 바닷물이 몽돌을 적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마음까지 맑아진다.



여름 영흥리 벽화골목



구석구석 보물찾기하는 맛, 골목 산책

세월을 간직하고 있는 추자도 마을의 골목길. 얇은 담장과 단정한 집 사이로 골목골목에 내려앉은 볕을 쪘다 보면 동네가 주는 정취에 점점 미움을 뺏긴다. 영흥리 마을의 골목은 타일로 알록달록 어여쁘게 가꾼 벽화를 살펴보는 맛이 있다. 꽃, 나비, 물고기 등 담벼락에 담긴 천진난만함은 여행자는 물론 마을 사람들을 미소짓게 한다.

여름 후릿그물 체험



낚싯대 없이 도전하는 바다낚시의 참맛.

후릿그물은 바닷가에 그물을 치고 양쪽으로 잡아당겨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법이다. 후릿그물을 타고 전해지는 손맛은 다른 낚시와는 달리 매끈하고 묵직하다. 여럿이서 그를 양쪽을 잡아당기다 보면 오징어, 고등어 등 여름 해산물이 얼굴을 내민다.

보통 30분 정도 소요되고, 7~9월 사이 후포해안에서 주로 운영된다. 운영 일자가 정해져 있으니 사전 문의와 예약은 필수다.

[후릿그물 체험](#)

문의: 대서리청년회[010-9245-9797]

여름 모진이 몽돌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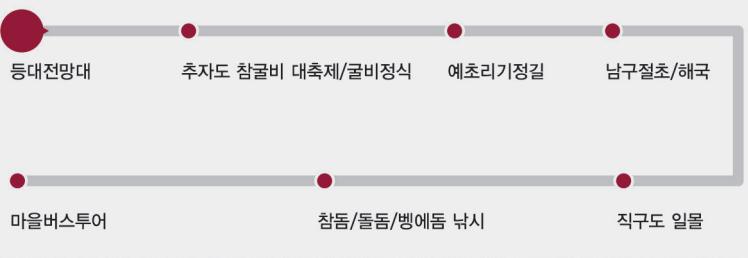
반짝반짝 추자비치

바닷물에서 더욱 반짝이며 빛나는 몽돌해수욕장에서는 온갖 물놀이 아이템을 즐길 수 있다. 스노클링 장비를 챙겨 바닷속을 들여다보거나 매트를 펴고 누워 태닝하는 것 외에 더위를 참을 수 없을 땐 그저 풍덩 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즐겨도 좋다. 모래사장이 아닌 자갈밭 해변이라 해수욕 후에 몸에 붙은 모래 터는 수고도 없으니, 추자비치 어찌 좋지 아니한가.



가을 추자 탐험

#등대 #전망 #굴비 #야생화 #일몰 #낚시 #버스투어



秋1 등대전망대



추자 등대에서 만끽하는 제주의 다도해

42개의 섬이 모인 추자도. 상추자, 하추자, 추포도, 훨간도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추자군도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제주의 다도해'다. 스케일 넘치는 추자군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명당은 단연 등대전망대. 등대 내부로 난 계단을 올라 등대를 따라 훌륭 걸으면 추자군도의 전경이 사방을 둘러싼다. 이때 시선을 아래로 낮추면 야트막하고 알록달록한 지붕을 엿은 상추자도의 일대가 병풍처럼 둘러진다.

秋2 참굴비대축제/굴비정식



추자인의 밥상, 참굴비

추자도에서 참굴비의 유명세 못지않게 이름난 굴비정식은 동네 식당 어디서나 맛볼 수 있다. 넉넉한 인심 담아 가득 차리는 상차림에서 가장 중앙에 놓이는 건 다름 아닌 굴비구이. 참굴비는 노릇하게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고, 다른 한 없이 구이 한 점에 쌀밥 한 숟갈씩 먹다 보면 금세 밥 한공기가 비워져 있다. 9월의 추자는 바야흐로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의 계절이다. 제철 추자 굴비를 비롯해 추자 음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맛깔나는 이벤트가 준비하다. 먹거리 장터는 물론 각종 체험,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秋3 예초리기정길



여행자가 어촌마을을 여행할 때 기대하는 것들

예초리기정길은 추자 바다를 옆으로 두고, 숲속 탐험에 나선 듯한 기분 속에서 산책할 수 있는 구간이다. '기정' 이란 해안절벽을 뜻하는 제주 방언으로, 예초리의 굽이진 골목길을 설명할 때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한 표현이다. 해안절벽길 끝에서 펼쳐지는 예초리 마을은 바다갓것을 손질하는 어르신과 고즈넉한 길, 빛바랜 가게들, 비릿한 바다 내음이 풍기는 해안가 풍경으로 완성된다. 올레 코스이기도 한 이 구간은 천천히 구석구석 추자의 비경을 담으며 걷는 맛이 좋다.

秋4 남구절초/해국



추자도 야생화 탐험

올레길과 바다낚시에 더불어 가을의 추자에서 놀칠 수 없는 건 더 있다. 더위가 한발 물러선 가을, 추자 곳곳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야생화가 얼굴을 내민다. 해풍과 염분을 버티며 사는 까닭에 그다지 길쭉하지 않게 자라는 편인 추자 야생화를 직접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테다. 섬과 바닷가에서 자라 9~11월에 흰색 꽃이 피는 남구절초와 햇볕이 잘 드는 암벽이나 해변가 경사진 곳에서 자라는 보랏빛 꽃의 해국이 가을 추자의 대표 야생화다.

The map shows the following locations and activities:

- Top Left (Orange circle):** Autumn 5 (秋5) at Naemul-myeon (나emu리마).
- Top Center (Orange circle):** Autumn 7 (秋7) at Maebus-tour starting point (마을버스투어 시작점).
- Top Right (Orange circle):** Autumn 3 (秋3) at Yeojoori Geojingil (예초리기정길).
- Middle Left (Orange circle):** Autumn 1 (秋1) at Dongdaemun Observation Tower (등대전망대).
- Middle Center (Orange circle):** Autumn 5 (秋5) at Jeogudo Sunset (직구도 일몰).
- Middle Right (Orange circle):** Autumn 6 (秋6) at Carpenterfish/Frigatefish/Bengae-dong fishing (창돔/돌돔/벵에돔 낚시).
- Bottom Right (Orange circle):** Autumn 7 (秋7) at Village Bus Tour (마을버스투어).

秋5 직구도 일몰

직구도로 떨어지는 붉은 노을

직구도는 거북이가 머리를 빼꼼히 내밀고 있는 듯하다고 해서 직구도로 불리게 되었다. 직구도로 떨어지는 해 질 녘의 붉은 노을은 추자십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올레 18-1코스인 봉골레산 또는 추자도판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다무래미는 직구도 일몰을 보는 최적의 장소다.

秋6 창돔/돌돔/벵에돔 낚시

가을 돋 삼총사를 찾아서

추자에서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 시기에 돌돔과 창돔, 벵에돔으로 결성된 가을 돋 삼총사가 잡힌다. 돌돔은 몸길이가 90cm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큰놈'으로 처주는 건 100cm를 훌쩍 넘는다. 깊은 바닷속 암초가 무성한 지대에 사는 돌돔은 치어일 때 노란 몸에 뚜렷한 7줄의 검은색 가로띠가 있고, 크면서 점차 몸 전체가 검은색을 띤다. 벵에돔은 몸이 검다는 이유로 제주에서는 구릿, 전남에서는 깜정이로 불린다. 몸은 납작한 타원형이고, 등은 녹갈색, 배는 은백색이다.

秋7 마을버스투어

버스 하나로 충분해, 추자도 하루 버스

바다와 산, 올레길과 마을, 해안도로와 길가에 편 야생화까지. 상추자도에서 하추자도를 오가며, 섬에 하나뿐인 버스에 오르면 섬의 해사한 민낯을 볼 수 있다. 추자의 마을순환 버스는 섬의 주요 명소를 빠짐없이 다닌다는 점에서 여행자에게는 꽤나 중요한 수단이자 정보다. 여객터미널을 출발해 면사무소, 대서리, 보건소, 영흥리 등 상추자도 스팟을 거쳐 추자교를 건너면 하추자도의 목리, 신양리, 징장평사, 모진이해수욕장과 돈대산, 예초리까지 촘촘히 여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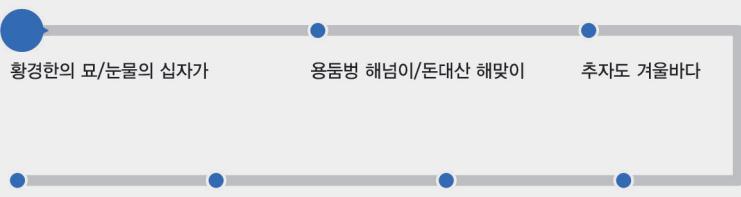
P.10

autumn



겨울 추자 탐험

#탁트임 #해님이 #해맞이 #세시풍속 #대보름 #전망



① 황경한의 묘/눈물의 십자가



정난주 마리아의 숨결을 따라서

1801년 조선시대 신유박해 당시 황사영의 순교로, 부인 정난주는 한 살배기 아들 황경한을 예초리 갯바위에 두고 떠난다. 아들이 평생을 죄인으로 살까 걱정한 어머니의 애끓는 모정에서 비롯한 비극이었다. 이후 아들은 하추자도 주민에 의해 길러졌고, 장성해 지난 사연을 듣고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여생을 보냈다. 정난주와 황경한 모자의 사연을 간직한 추자에는 황경한의 묘가 있는 맞은편 예초리 바닷길에 제주에서 천주교의 뿌리가 되었다는 역사를 기억하며 ‘눈물의 십자가’를 세웠다.

② 용돌벙 해님이/돈대산 해맞이



섬 속의 섬에서 경험하는 마무리와 시작

42개의 섬 위로 지고 뜨는 해는 추자도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용이 살던 연못이라는 뜻의 용돌벙은 수평선 위로 지는 해를 어떠한 방해를 없이 시원히 볼 수 있는 해님이 명소다. 해맞이길이 조성되어 있기도 한 해돋이 명소 돈대산은 해발 164m의 정상에서 바다와 하추자도 마을 전경을 감상하기에 좋다. 연말연시로 분주한 12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1월의 첫날. 섬들의 섬 추자에서 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으며 소중한 인연에게 특별한 인사를 건네보자.

③ 추자도 겨울바다



나바론 절벽이 선사하는 겨울 바다의 멋

겨울의 추자 바다는 여름의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잔잔히 빛나던 물결은 물빛이 짙어지며 한층 거칠어지고 물으로는 하얀 거품을 물고 밀려온다. 약 2km의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 리드미컬하게 펼쳐지는 나바론 절벽에 서면 추자의 겨울바다가 연출하는 진풍경을 오롯이 볼 수 있다.

④ 갯바위낚시



추자 갯바위에 오르는 자, 대어를 만나라

탁 트인 바다와 깊어지른 듯한 절벽을 마주하고 선 갯바위는 낚시 좀 한다고 하는 ‘선수’라면 더욱 꽁 빠질 수밖에 없는 훌륭한 포인트다. 갯바위 낚시는 접근이 어렵지만, 씨알 굵은 대어를 낚을 수 있어 많은 낚시꾼의 도전 욕구를 자극한다. 중들물에서 만조 무렵까지 어느 정도 수심이 확보될 때야말로 절호의 입질 구간이다. 특히 갯바위에서 10~15m 안쪽 구간에 무너진 바위 틈새에서 입질이 잘 온다고.



⑤ 결궁/현식



민족 대명절에 지키는 세시풍속, 결궁과 현식

추자 사람들은 설날마다 추자도 민속농악이 곁들여진 결궁과 현식굿을 벌인다. 결궁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액막이를 위해 마당을 밟는 자신밟기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현식굿은 바다에서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굿으로, 자신밟기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추자항에 모여 밥을 종이에 싸서 바다로 던지는 제를 지낸다.

⑥ 추자 정월 대보름



달 아래서 흥 넘치는 출다리기

추자에서 설날보다 스케일이 큰 명절은 정월대보름이다. 섬에 가장 큰 축제가 이때 열리기 때문이다.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에는 파도가 높아 조업을 할 수 있는데, 예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때 다 모여 출다리기를 하면서 협동심을 다졌으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모두의 힘과 기운을 모았다. 정월대보름에 출다리기를 하는 추자도의 전통은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흥겨운 시간 속에서 질병 퇴치 의례를 갖고 만선을 기원하는 등 정월 신년 의례와 함께 치러진다.

⑦ 최영 장군사당



추자에 대한 간절한 염원, 최영 장군 사당제

고려 시대, 목호의 난을 진압하려 제주로 가던 최영 장군은 풍랑을 만나 추자도에 오게 됐다. 한 달가량 추자도에 머문 최영 장군은 추자 사람들에게 그를 짜는 법과 어망으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다. 출날 추자에서는 최영 장군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짓고 매년 음력 2월 1일에 최영 장군 사당제를 치렀다. 제주도기념물 제11호인 최영 장군사당은 대서리 추자초등학교 뒤 언덕에 위치해 있다. 추자 올레 코스에 속한 이곳은 추자항과 섬을 둘러싼 근사한 전망을 감상하는 포인트다.